



한인회보

Washington State Korean News

The Washington State Korean News is Published monthly by Seattle 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11514-15th N.E., Seattle, WA 98125
 Paul H. Shin, Publisher
 Shi Chung Park, Editor

VOL. 2. NO. 6

SEATTLE 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Sept. 1975

한인회관 설립기금 위한 한국의 밤 개최예정

한인회관 설립 추진회인 건축위원회에서는 오는 9월 27일(토요일) 오후 8시 30분부터 나일 템플(Nile Temple: Seattle Center)에서 "한국의 밤"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한다.

교포수가 늘어남에 따라 교포들의 활동도 더욱 활발해지고 또한 교포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끊임없는 찬양과 격려를 세워야 할 계획도 부지기수라. 이 모든 시각의 취향으로 우리교포들이 한리모여 노력을 짜내고 몸담을 "한인회관"이 절박적으로 필요하라는 것은 우리교포 모두가 공감하는 터이다.

"한국의 밤"은 그동안 꾸준히 계속해온 건축기금 모집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행사이기 때문에 많은 교포들께서 협조해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우리들의 "섬의" 한중 한중이 모여 한인회관, 의 머릿들이 될 것이다.

"한국의 밤"은 우리교포들이 오랫동안 하리모여 분주했던 여름을 보내고 결실의 가을을 맞는 송명(送名)과리가 되겠는데 여러분의 힘을 돌리기 위해서 한국인 5인조 밴드를 초대할 것이며 술안주 맥주 콜라. 씨분양 등은 건축위원회에서 제공할 예정이다. 양주를 마시실분은 각자 지참해 주시기 바란다. 작년이 참석하신분은 지리에 익숙하시겠지만 모르는 분들을 위해 약도를 첨부하니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넓은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음을 또한 알려드린다. 또한 라일 Nile Temple 이나 아래 씨매처에서 구입하시면 될라 되도록이면 모처를 주어지는 가을밤의 정취를 마음껏 즐기실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을 부탁 드린다.

- 라일감소에서 구입시 : 4\$
 씨매가력 : 3\$ 50¢ (no refund)
 씨매장소 :
 Seattle: 아리랑바
 오래양
 한국집
 씨서론
 Tacoma: 부인회
 북경식당
 등양원



8.15 기념 행사에서
아빠들이 "자루뚜기"

8.15 기념 행사 링컨 파크에서 -우천 무릎쓰고 많은 교포들 참석-

지난 8월 16일 링컨 파크에서 8.15 기념 행사가 있었다. 우천이라도 불구하고 씨아들은 물론 멀리 타고오기까지 근 삼백여명의 교포들이 참석, 보국의 광복 30주년 기념일을 되새기는 모임을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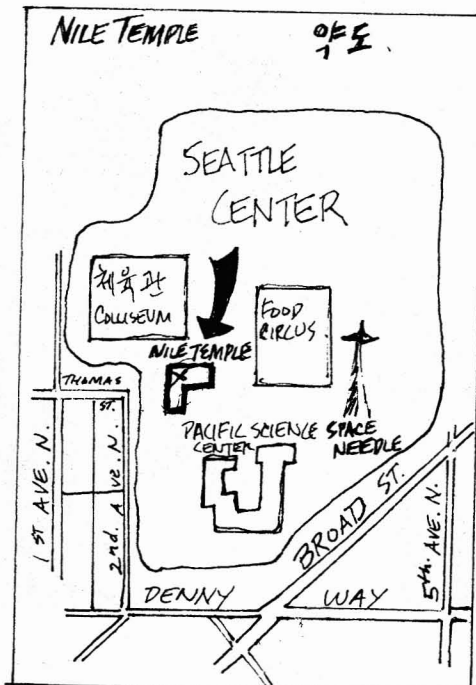
황수철 부회장의 사회로 8.15 기념식이 진행되었고 기념식이 끝나고 각종 여흥무대로 들어 갔는데 꼬마들을 위해서는 공물리기, 풍선짜기, 과자짜기 보물찾기, 어른들을 위해서는 자루뚜기 줄라리기, 공물라리기 등이 있었는데 오랫동안 동포들이 한자리에서 만나 알겠을 줄일수가 있었다.

각부로나라 귀중한 상품이 사상이 되었는데 상품을 받고는 모두들 동심으로 돌아가 기쁜 표정을 지냈다. 이 행사를 원안히 끝낼수 있었던 것은 전심을 아려한 한인회 임원부인들, 무로그량을 찬양한 체육부장 구상열씨, 무로그량을 진행한 종무장진성씨, 교육부장 오제희씨, 상품을 선사해주신 무역가 윤숙이 씨등의 공훈이 컸고,

이 무엇보다도 큰 공로는 역시 각교회, 라코마 부인회 학생회를 막대한 모든 교포 여러분들의, 이날을 기리기 위한 높은 뜻이려라 한다. 점심 마련을 위해서 황수철 부회장 부인, 오제희씨 부인, 전계상씨 부인 의 수고가 컸으며 그밖에도 케이크를 해오신 신호범 회장 부인, 밤을 해오신 분들, 나물을 무려 오신 분들, 약밥을 해 보내신 동서원의 노차라씨, 물은 끓여오신 분들, 당일 출생해서 음식대점에 참가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는 한편 흐뭇하게 생각한다.

건축위원회 주최 영화상영 성공

지난 8월 건축위원회 주최로 45th St. Guild Theater와 Tacoma에서 육군길일병, 이라는 한국 영화가 상영되었는데 교포들로 성황을 이루었다. 이번의 영화가 성황을 이루자 건축위원회에서는 앞으로 매달 한편씩 한국영화를 상영할 계획이며 이 기관은 한인회관 건립에 쓰일것이라고 하는데 교포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기대하고 있다.



가園에서 고향의 詩를 읽으며

崔宰元

요즘 함으로 좋은 詩를 찾아만 어렵다 고들 한다. 또 독자보라 詩人들의 수가 오...

물론 어느 詩人也 그가사는 현실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지는 않는다. 詩人들이 현실을 다루기 위해서는 꽃, 나무, 달, 호수를 노...

서거사는 잔치 申庚林 崔宰元의 두 경우를 들어 詩人과 현실과의 관계를 살...

그렇다고 그는 한국적인 根과 '물음'의 美學(?)속에만 머무른다는 않는다. 그는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이같이 단순한 抒情을 노래할수 없게 되어버린 극한적 이미지의 주를 현실의

혹은 이 빗대어 얘기 했었다. 바로 얼마후 대학선배인 그와 이별주를 나누면서, 그의 詩에 있어서 여행, 방황등의 이어지는 조국적인...

이러한 申庚林씨는 50年代 초부터 詩作의 演進을 잘 보여 지인이다. 몇달 전에 나온 시집 慶舞 增補판을 읽으면서 우리는 현실에 대응하는 시인의 여...

우리와는 상관도 없는 외국의 어느 김빠진 야구경기에 주목을 부려주고 미치광이 선곡사를 따라 뒷대를 돌리고...

그렇다고 그는 한국적인 根과 '물음'의 美學(?)속에만 머무른다는 않는다. 그는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아 그리하여서 / 골목을 쓰는 비합 소리에 몸을 찌르는 / 내 등뒤에서 나를 꾸짖고 있다'고 쓰고 있다.

그의 詩에서 동춘사람들은 「괴로움을 아는것은 우리뿐」이라고 깊은 동정을 거 부한다면, 오랫동안 찾아간 고향에서 이 詩人을 사로 잡는 것은 시골사람들의...

우리와는 상관도 없는 외국의 어느 김빠진 야구경기에 주목을 부려주고 미치광이 선곡사를 따라 뒷대를 돌리고...

이러한 申庚林씨는 50年代 초부터 詩作의 演進을 잘 보여 지인이다. 몇달 전에 나온 시집 慶舞 增補판을 읽으면서 우리는 현실에 대응하는 시인의 여...

이러한 申庚林씨는 50年代 초부터 詩作의 演進을 잘 보여 지인이다. 몇달 전에 나온 시집 慶舞 增補판을 읽으면서 우리는 현실에 대응하는 시인의 여...

노동은 건강한 생활의 활력소

심 상현

한국에 있어서 가끔 자동차 밑에 들어가 불뚝을 튀기며 땀을 흘리는 용접사들을 본일이 있다. 커다란 산소통을 옆에다 놓고...

수있는것은 많은 미국 여성들이 이 직업에 종사하고 싶다는 것이다. 갖는 일로써 명랑하게 일하고 있는 여성들을 볼때...

우리는 사치스럽 유한 이민들이 아니며 우리의 목적으로 성실껏 일해서 생계를 일구기 위해 온 개척 이민이다.

구인 어린애 보아주실분을 구함 후한 월급과 침식을 저금 단 한글을 가르쳐 줄수 있는 건강한 분을 원함 연락처 623-4660

한인회에 기부금을 내주시는 분 (경정 생략)

- 1. 박 경준 20\$ 2. 신 호범 100\$ 3. 오 계희 10\$ 4. 한 만섭 10\$ 5. James Kim 10\$ 6. 진 계상 25\$ 7. 이 랑희 50\$ 8. Mrs. Knowles 20\$ 9. Mrs. Smith 25\$ 10. 서 문상 30\$ 11. 심 상현 10\$

(그 외 분들도 계시나 정리상 다음 호에 발표하겠습니다)

"I service all makes + models"



- ◎ SERVICE 내용 • Engine Rebuild • Brake Reline • Tune up • Carburetor overhaul ◎ 시중 수리비의 20% - 40% 이하 (교포에 한해서) ◎ 가정 방문 수리 ◎ 정기 정비차는 정비 Card를 비치 출장 정비 ◎ 수리한 분에게 이상이 없으면 책임 수리 ◎ Tune Up 요령을 배우시고 싶으면 개인 지도 ◎ Service 시간 월 - 금요일 5PM - 10PM 토 - 일요일 8AM - 10PM ◎ 전화 SEATTLE - VE9-3570 TACOMA - 588-9222, GR2-4181



419 First Ave. S. / Seattle, Wa. 98104 (206) 624-4277 Immediate openings for trainees & experienced operators. Trainees are given excellent training which offers a rapid acceleration of pay based on piece work.

재봉사 급히 모집 경험이 없으신 훈련생, 또 이미 경험이 있으신분은 빨리 구하고 있습니다. 응모하실곳: Sunset Sportswear, Inc., 419 1st Ave. So. POWER SEWING MACHINE OPERATORS

「협전」의 의미

박 건홍

두루 어느 일본인이 자기나라와 국
빈에 대하여 신랄한 비판을 가한 책한권
을 내놓고 커다란 물의를 일으킨 일이 있었
다. 나는 그 책을 읽어본 일도 없지만 신문
에서 본 기억으로 그 책이 일본인의 국민성의
추악성을 꼬집어 놓았다고 해서 일본인들이 그
작가를 두고 죽일듯 살릴듯 하고 썰매씩 쳤
다는 것이다. 그 지탄을 받은 일본 저자는
그 책의 권두언에서 말하기를 자기가는 일
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일본인을
칭찬하였노라는 아이러니컬한 술어를 썼
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가끔 우리나라 사람들이 스스로
를 「협전」이나 「협전근성」이니 하면서
집어넣는 얘기를 듣는다. 「한국놈들은 두놈
만 보이면 서로 싸울질 하니 협전은 할수 없
어...」 라든지, 한국서 만든 물건들 쓰
다가 고장이라도 나면 「협전것 별수 있
나」 또는 반대로 그 물건이 좋게 보이게
되면 한국산수들이 국채정기에서 이
기게 되면 「협전로 제벌이야」 하는 식
의 얘기를 들린다. 이런 자기 경멸적인 얘기를
은 앞서 말한 일본 작가가 그 문제의 책
에서 일본인의 불민성(不民主性)을 꼬집
은 것과는 전혀 성질이 다르다. 이런
꼬집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이런 국민성이
있는지 알아서 고쳐보자는 것도 아니고, 우
리는 고쳐보았다는 누워서 침뱉기 식의
개근치 않는 뜻 뿐이다.

「협전」이란 말을 흔히 들으면서 또
는 흔히 하면서도 정말 우리가 쳐다보려
못한 민족언어를 꺼져볼까 그말에 근거
가 있다고 믿는 사람은 드물것으로 안다.
서로 싸울질 하는 것이야 우리들만이 가진

특성이 아니라 사람의 본성중에 하나라.
일본사람 관할 관할하고들 하지만 그들
과별 싸움은 시계적으로 잘 알려진 바 이고
미국사람들 저쪽자 잘났다고 뽐뽐히 나서
는려는 우리가 미치지 못한다. 한국제
냉장고가 약한 것이야 그 선물을 꺼져보
면 이해하고도 남는 일이다. 냉장고 못만
드는 국민도 많은데 근대화 몇년하고 그나
다 만들어 냈으면 개천하라고 보아야 한다.
우리에게 오랜 문화적 전통도 있고 이순신
을지문덕 등의 역사적 인물도 살아있지 있다.
「천관한 반란년의 역사」 「살천리 굶주강산」
이란 얘기는 우리가 차라리 나무야이 들어온
바이지만 그것도 편쳐 첫소리만은 아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혹하면 「협전」이
란 얘기를 하는가? 누가 처음 그말을 시작
했는지는 몰라도 그말이 이렇게 「유형」하
게 되리에는 무슨 실상치 않은 선유가 있
지 않나. 전문적인 연구는 앞으로 학자들이
할 일이겠지만 나의 인상으로 우리가 역사
적으로 함께 살아온 「열등의식」 「패배의
와 상관」이 있지 않은가 싶다. 우리는 잘못거
대한 중국에 놀려살아왔고, 약삭빠른 일
본 한테 술하게 길러왔고 지금도 그두나라
와 미국, 소련의 그늘 아래에서 살고 있다.

바깥을 쳐다보면 라 우리보다 남는게 우리
만요양 요양이다. 우리가 좀 놓아자는 것
같아도 바깥세상 발전하는 것은 꺼릴수 없다.
림치들이 뒤따르듯이 두라리 뻗고 큰소리할
도리가 없다. 이렇게 너무 오래 살아보니
「열등의식」 「패배의식」이 아주 우리 체내
에 뿌리박은 것이 아닌지. 땅 경어리를 아
예 놓여 놓을수 없는 바에는 이렇게 둘러살
아서 속죽이고 사는 것이 거의 운명처럼 되
고 그러다 보면 주위에서 우리를 짓눌르는

물체들은 어느새가 우리와 한몸처럼 느끼
게 되며, 그러다가는 이렇게 손잡잡하고
뻘뻘어진 우리의 모습이 마치 우리체질이
서오는 무슨고장 때문에 그렇지는 않은가 느
끼게 된다. 다시 말해서 원천적으로는 주위
환경에서 오는 원인을 우리의 국민성에서 오
는 것으로 간주해 버리게 되며, 약한 것도
「협전근성」 때문이요. 강하는 것도 「협전
근성」 탓이라고 하는 것이 아닐런지. 그래서
그 손잡잡한 한국을 떠나 이렇게 원히 드인
미국이 와서까지 특하면 「협전」 「협전」
하는 것이 아닌지...

이유야 여하튼간에 「협전」으로 하는
말은 여러번 공기 처럼 분취기를 총지 않게
한다. 듣고 나면 항상 좋지 못한 기분이다.
그말에 근거가 있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바에야 기분 나쁜 말을 자주 쓸 필요
가 없다. 정말 입버릇처럼 「협전」 「협전」
하라간 정말 우리가 그렇게 되어버릴지도
모른다. 이미 유형어가 되어버렸으니 하루
사칠이 없지 않는 어렵겠지만 그말을 쓸
때는 최소한 한번 생각을 해보는 버릇을
가졌으면 싶다. 말하는 자유야 천부의 권
리이니 누가 뭐라되라 할수 없지만 그말
을 쓸 때에는 입버릇으로서가 아니라 그말의
사실적 근거를 달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남주
셔야 할 것이다. (U.W 정치학 박사과정)

협전고회 - 창립 4주년 기념 예배 -

최용필 목사가 주도하는 시야를 협전고
회는 9월 14일 창립 4주년 기념 예배와 라과
회를 가졌는데 각계인사들은 물론 많은 교인들이
이교회가 비살되는 기념예배에 참석 이
날을 축하했다.

한인사회 발전을 위한 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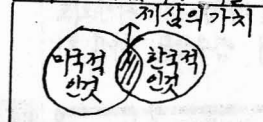
유 재건

70여년전 처음 화와이를 거쳐 미주
밖에 이민을 시작한 한인들의 수는 이제
20여만을 헤아리게 되었으며, 이곳 워싱턴
주에 인종 약 반여를 돌파하게 되어 소
수민족 중의 소수민족 이라고 불리우던 우리
한인들이 특히 급격히 있었던 「한인의날」
행사를 통하여 워싱턴주에서는 무시할수 없는
소수민족으로 등장함에 따라 우리 한인사회의
장래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수 없게 되었
던 것이다.

이런 동기는 어쨌든간에 근래의 이민
은 이곳에서의 정착을 목적으로 이루어 왔다는
점에서, 실력을 키워서, 혹은 조국이 독립이
되면 즉시 귀국하겠다고 버려진 과거의 유학
생이나 정치 망명객과는 그 성격이 있어
관여하기 다른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바 이들
은 귀국의 이상보다는 이 땅에서 영구하려는
이상과 기호 새사회에서의 적응이 전적으로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문제는 주체로서
의 한민족이 미국이라는 새로운 사회적 문화
적 환경에 적응해 나가는 과정과 이와같은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기성사회와
의 제도적 가치관적 상호 역할의 현상인
것이다. 어떤 도시에서는 한국타운이 이루
어졌다고 한인사회가 발전했다고 하
고 자랑도 하며, 그까짓 영어 못해도 잘
살수있다고 뽐내기도 한다. 그러면 한글
로 쓴 액집, 관상사주집, 한국술집의 간판
이 많이 걸렸다고 한인사회가 발전한 것
이며, 또 발전할 것인가? 발전이 무엇인
가? 일반적으로 한 사회의 발전이란 제도
적인 재조정 또는 개혁을 의미하는바, 구
체적으로는 한 사회 구성원 간의 관계개선
나지는 새로운 가치체계의 발현으로 나타
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때에 이항
에서의 한인사회 발전을 우리가 지니고 있
는 제반 조건과 문제점을 검토 분석하고 재
조정할 필요가 있을것 같다. 즉 문제의
해답을 한인개인들이 또는 한 집안으로
서의 한인사회가 미국의 이상적 현실적
제 가치와 제도를 어느정도 흡수하여 동화
해나가는나와 문제와 이관점에서 본래
의 한국의 고유한 문화를 혹은 정신을 잃어
나 보우려 나가느냐 하는 문제로 부러 찾아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한인사회 발전
이라 함은 한편으로는 미국적 사회환경
속에서의 자기 정립이라고 말할수 있겠고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문화의 동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야기되는 자기 상실이라는 위
기를 극복하여 아이덴티티 또는 개성을
유지 한다는 것과 같은 말이 될 것이다.

그러한 중요한 문제는 많은 교도들이 교포사
회라는 개념을 한국적 차원이면 고착시켜
사회의 발전을 우리의 고유한 것, 우리에
게 이익이 되는 것만을 보호, 육성, 방어 하
고 발전시키는 과정이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그러나 이와같은 배타적
이며 경계적인 기호는 오늘날과 같은 개방
사회에서는 퇴폐적인 것이라고 할수 밖에
없다. 우리와 같은 이땅에서 이땅에 와 살
고 있는 중국과 일본의 발전상을 들여다
보자. 중국인들은 소위 「차이나 리운」 이
라는 울타리를 스스로 만들어 스스로 고
립시켜 후세들의 진취성을 제약하고 있으며
차이나 리운은 커우 미국인들의 관광코스
의 하나라, 마치 그안에 살고있는 중국인들을
동물원안에 원숭이 들여보듯이 구멍이나 하는
곳이 되어버렸는가 하면, 일본인들은 미국
사회 조직에 흡수를 모색함으로써 자기들의
사회적 힘을 과시하고 있다. Japanese
Citizens League 같은 단체는 워
싱턴 리시에 로비스트까지 파견하여 일
본인들의 생활복지에 관여하는 법안이나
행정 명령이 논의되므로써, 강력한 압력
단체로까지 활약하고 있는 것이다.
결자는 위에서 한인사회의 발전을 한국적
인 아이덴티티 뒤에 미국적인 것을 구제
적으로 소화하면서 사회동화를 겪음으로
한국적인 것과 미국적인 것의 배합에서 새
가치를 창조하라는 차원에서 모색해보려는
노력을 하였다. 이를 도입으로 표현한다면



미국적인 것과 한
국적인 것의 배합
으로서의 새로운
가치체계의
인 것이다. 즉 위
거나 보편적인 개인주의(나만 제일 이라
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 나와 더불어 내가 받
전한다는 합리적인 개인주의)나 세계주의
로서의 새로운 가치관의 확립이 필요할 것
이라고 본다. 이와같은 제값의 가치체계
는 조직화된 힘으로서만 가능하므로 이를 위
한 조직적인 활동의 필요성이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것이다. 즉 우리한인 사회내에 이
민이면서, 이땅에서의 문제들을 연구하는
학술연구 단체가 필요하리. 적극적으로 미
국사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일별 시민
선명파 같은 조직이 필요하리. 우리의 문화
를 이땅에 소개하고 자부들에게 우리의 고
유한 문화를 알림으로서 우리것과 미국것의
배합으로서의 새로운 가치관을 심어주는 역
활을 할수있는 우리말 방송국의 설치같은 것
이 그 예라.
특자는 일본 이민은 그역사가 오래되었으며, 영
제적으로도 상당히 자리가 잡혔기 때문에 그
와 같은 활동이 가능하나, 우리는 아직 초기
이민 단계이니 시기상조라고 생각할지 모
르나, 저금부터라도 부족한대로 한인사회의
발전을 위한 정치작업에 손을대면, 후일에
말코 막을것을 되로 막는 벽이 될 것이다.
미국사회는 누가누에게 무엇을 주고 인도하
여 이룩된 사회가 아니라, 권세계에서 물려
온 우리와 같은 이민들이 살길과 활일을 찾
아 꾸준히 찾고 두드리며 개혁해온 개혁파
투쟁의 사회인것을 생각하여 보다 적극적인

가치관 확립의 길은 모색할때에 우리한인
사회는 발전할 것이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주인도 없고 객도 없는 나
라이며, 모퉁에서 노력하고 힘찬채 개혁
해나가는것은 늘 번영이 좌랐던 것은
200년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지 않은가?

(편집자주: 글쓰신 분은 3년간 씨아들
에 거주하면서 U.W.에서 공부하시
다가 밤을 꼬박 자, 가족이 다 칼리도
나야로 이사하시게 되었다.
개혁파이자 활동가이신 씨아들의
「신념」한 활동을 많이 읽을 심심히
생각하며 교포 여러분께 인사말을
들 전한다)

해방 30주년 기념 한국고전 歌舞祭 - 씨아들 북음교회에서 -

지난 9월 14일 시내에 있는
First Methodist Church에서
는 해방기념 30주년을 축하하는
한국고전 歌舞祭를 열었다.
방민회, 김 비회씨 등이 고전무용
을 했으며 장 경애씨가 가야금
을 연주했고 순복음교회 합창대가
합창을 맡아했는데 많은 교도들이
참석 해방되던 때의 감격을 되
살리는 한편 모국을 그리는 향수에
젖었다.

한국일보

신속하고
정확한
뉴스를
아시려면

한국일보로!!

구독신청 문의는
228-6211로
하십시오



필신 (PAULL SHIN) 부동산

firstline properties inc.
Member of North End Brokers Assn.

- 알맞은 주택알선
- 토지 및 부동산 안내
- 아파트 건물 구입 소개
- 기타 상업안내

*** 부동산을 매매 하실 때는 신용과 많은
이익을 보장하는 필신에게 문의 바랍니다.**

신호범
PHONE
Bus. 365-6363
Res. 778-1972

PAULL HO BOM SHIN
Sales Representative

11514 - 15th Avenue N.E.
Seattle Washington 98125

※ 현존 2,8000
에 내놓은
새집이 있음.
P.8. 광고를
보십시오



한인회보

Washington State Korean News



VOL. 2 NO. 7 SEATTLE 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SEPT. 1975

1976년도 한인회 회장·이사·회관설치 정·부위원장 선거세칙 공고

다음의 선거세칙은 한인회칙(1974년 12월 1일자)에 의거 하여 이사회에서 선출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회칙에 준하여 정하여진 1976년도 한인회 회장·이사·회관설치 정·부위원장 선거 규정임을 여기에 공고한다. 단 세칙에 관한 이의는 후보자 공고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 1) 한인회 회칙 제 4장 19조에 의하여 선거일정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 가) 선거세칙공고 - 1975년 9월 30일 이전
 - 나) 입후보자접수 - 1975년 10월 25일 까지
 - 다) 후보자공고 - 1975년 10월 26일
 - 라) 선거(총회시) - 1975년 11월 8일
- 총회장소, 시간 등은 후보자공고시(1975년 10월 26일)에 공고한다.

- 2) 선거사항
 - 가) 회장 1명
 - 나) 이사 4명
 - 다) 회관설치위원장 1명
 - 라) 회관설치부위원장 1명 (한인회 부회장 1명은 선거된 회장이 지명후 총회에서 인준.)

- 3) 유권자 자격
 - 가) 1975년도 회비납부자.
 - 나) 회비납부마감 - 1975년 11월 8일 투표전

4) 피선거권자

최소 2년이상 회비를 내고 본회 의무를 다한자 (회칙 4장 21조)

5) 입후보에 관하여

가) 회장 또는 이사

첨부한 입후보 용지에 추천자 3명의 서명과 입후보자 동의 서명을 받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된다. 입후보자는 회장 또는 이사 중 한자위에 한해서 입후보 할수 있다.

나) 회관설치 정·부위원장

선거장소에서 구두추천된 후보자 중에서 선거한다.

6) 선거 방법

가) 회장과 이사 선거

총회 회의장 입구 앞에서 선관위가 배부해주는 투표 용지로 입장전에 투표함에 무기명 투표한다. 선거용지를 배부받을 회원은 선관위의 유권자 명부에 1975년 11월 8일 현재 등록된 자에 한한다.

가) 계속

회장선거는 투표용지에 희망하는 회장후보자 1명을 기명 투표한다. 단 1명 이상 기명시 투표를 무효로 한다.

이사 선거는 투표용지에 희망하는 이사후보자 4명을 기명 투표한다. 단 4명 이상 기명시는 투표를 무효로 한다.

나) 회관설치 정·부위원장 선거

총회 회의장에서 선관위가 배부해주는 용지로 회장내에서 구두추천후에 무기명 투표한다.

다) 선거 결정

다수투표자가 당선된다. 단일후보시는 당선으로 인정한다. 이사 선거시에는 다수투표순으로 4명을 당선자로 결정한다. 동수투표 인 때에는 동수투표자에 한해 재선거 한다.

7) 의사진행

의사진행은 회칙과 통상관례에 준한다.

8) 선거관리위원회 권한

현행 한인회 회칙에서 주어진 권한에 의하여 1976년도 한인회 선거에 선적 권한을 가졌음을 공고한다.

한인회비 내신분 (경칭 생략)

- 61. 김 덕권 5\$
- 62. 김 풍걸 5\$
- 63. Mrs. Matsumura 10\$
- 64. 김 홍식 10\$
- 65. 박 정준 10\$
- 66. 조 갑철 5\$
- 67. 최 경선 5\$
- 68. 이 중호 10\$
- 69. Pam S. Lee 3\$
- 70. Dan Tom Lee 10\$
- 71. Mrs. Jhon Radin 10\$
- 72. 김 도모 5\$
- 73. 오 준걸 5\$

원고, 광고 모집

한인회에서는 회보에 실릴 원고와 광고를 늘 환영하고 있습니다. 원고를 보내시거나 광고 문의를 하시고 싶으신 분은 한인회(365-6363)로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집 판매 !!

침실 3개, 오락실, 앞뒤 마당있음. U.W.에서 가깝고 교통편리한 푸른지대. 지은 지 4년밖에 안된 새집. 28,000\$. 관심 있으신분은 First Line Mr. Paul Shim에게 문의하십시오. (365-6363)

한인회비 납부를 요망합니다.

위상원주 한인회는 위상원주에 살고 있는 한인교포 사회를 발전시키는데 유용하게 쓰일 한인회비 납부를 요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교포 사회에서 한인회비가 쓰여질 용도는 무한합니다. 한인회는 여러가지 새롭고 건설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재정이 부실하여 실행 못하고 있습니다. 한인회비는 어디까지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서 제출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강요할 성질의 것은 아니나, 한인회를 돕는 의미에서 1975년도 한인회비를 아직 못내신 분은 아래사항을 참조해서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부, 5불 이상, 만 18세 이상의 학생 및 독신자, 3불인데 아래양식 참조, 주소, 성명, 금액을 정확히 적어 한인회 저주함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회비를 보내실 때는 수표나 머니오더를 사용하시고 현금 우송은 글러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회비를 내신분에게는 영수증을 보내드리는 것이 원칙이지만 편의상 여달 발행되는 한인회보에 명단을 발표하므로써 영수증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75년도 한인회비 \$

성명: _____

주소: _____

보내실 주소: MRS. LADELL SMITH
921 LAKESIDE AVE S.
SEATTLE, WA. 98144

수고 하신 분들

글씨: Mrs. 우영덕

인쇄: 김길량씨

사진: Norman Thorpe
Tom Mash



Armor & Associates, Inc. The Prudential Insurance Company of America

안병용 부동산보험 REALT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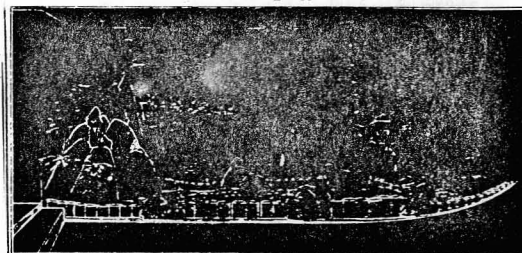
Prudential MLS

시애틀 838-2010
타코마 927-2277

*성실과 봉사로 최대의 이익을 보장해 드립니다.

PHILIP BYUNG-YONG AHN 안병용

부동산 집·아파트·땅-매매-관리-전세
보험 차·건강·교육·저축성 생명·IRA



日光園キャバレー
NIKKO GARDEN

1421 - 6th AVENUE • SEATTLE, WA 98101

Telephone: 624-3947

SEATTLE-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11514 - 15th Ave. N.E.
Seattle, Wash. 98125

NONPROFIT ORG.
U.S. POSTAGE
PAID
SEATTLE, WA.
PERMIT #919

Dr. & Mrs. Mansop Hahn
4232 N.E. 17th St.
Renton, Wash. 98055